

문 의	특허심사2국 약품화학심사과	과 장 이유형 사무관 신창훈	042-481-8406
	2016년 5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7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화사한 색과 향기로 봄을 알리는 봄꽃들,

봄을 알리는 용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 대표적인 봄꽃들의 의약, 화장품 용도에 대한 특허출원 동향 -

진해, 제주, 여의도 등의 벚꽃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남원 철쭉제 등 4월과 5월에는 다양한 봄꽃 축제들이 열리고, 봄꽃들은 화사한 색과 향으로 봄을 알린다.

대표적인 봄꽃 식물들인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벚나무, 목련 등은 연교(개나리의 건조 열매), 진달래, 영산홍의 꽃, 운대자(유채꽃 종자), 화피(벚나무 껍질), 신이(목련의 말린 꽃봉오리), 목련의 수피 등 예전부터 전통 약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을 의약, 화장품 용도로 더욱 개량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개나리, 진달래 속 식물¹⁾과 유채꽃, 벚꽃, 목련 속 식물²⁾에 대한 의약 또는 화장품 조성물 특허출원은 총 26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항염·항균·항산화 활성 등 의약용도는 175건, 미백·주름개선·항산화, 향노화의 화장품 조성물은 89건이 출원되었으며 식물의 수피, 꽃, 열매 추출물, 식물 유래 특정 성분, 발효물, 복합제 등의 형태로 출원되었다.

1) 진달래속(*Rhododendron*) 식물은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영산홍(*Rhododendron indicum*), 철쭉(*Rhododendron schlippenbachii*), 만병초(*Rhododendron brachycarpum*)를 대상으로 함.

2) 목련속(*Magnolia*) 식물은 목련(*Magnolia kobus*), 일본목련(*Magnolia obovata*), 후박(*Magnolia officinalis*)을 대상으로 함.

출원건수로 살펴보면, 개나리(97건), 목련속 식물(84건), 유채꽃(33건), 진달래속 식물(33건), 벚나무(17건) 순으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개나리**(연교 포함) 관련 의약, 화장품 출원은 97건으로 ▲대사성 질환(당뇨, 비만 등) 치료,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등의 의약품도 출원이 60건 ▲미백, 보습, 주름 개선 등의 화장품 조성물 출원이 37건이었다. 이 중에서, 개나리로부터 얻은 약재 성분인 연교를 일부 성분으로 포함하는 복합 조성물에 대한 출원은 73건이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목련속 식물**(목련, 일본목련, 후박 포함)에 대한 의약, 화장품 출원은 84건으로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 항암 활성 및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혈관 질환 등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의약품도 출원이 56건(67%)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목련 유래 추출 성분들의 다양한 약리 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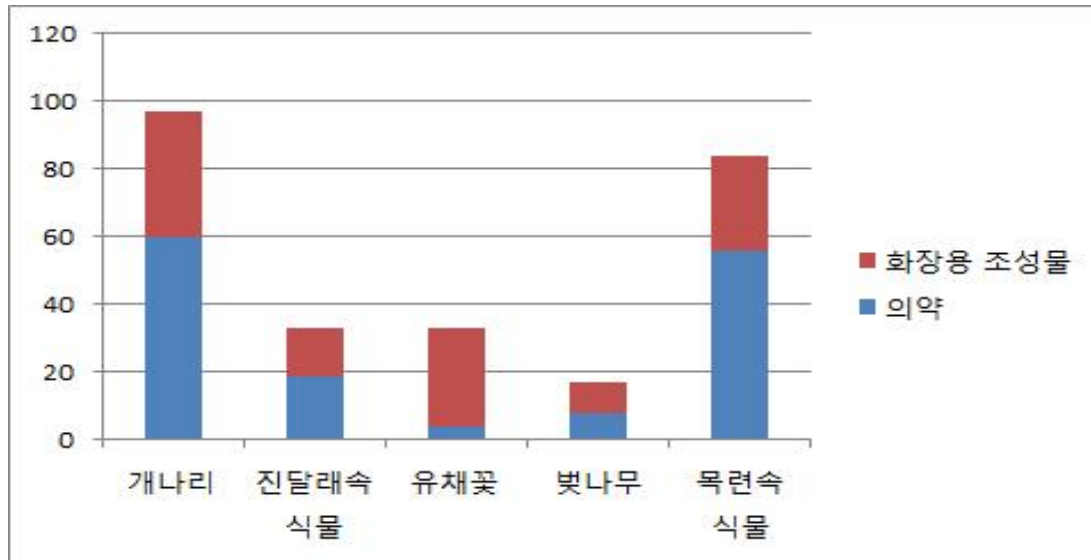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유채꽃** 관련 의약, 화장품 출원은 33건으로 피부, 주름개선, 미백 등 미용 목적 또는 아토피 치료를 위한 피부 외용제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29건, 88%)을 차지했고, 유채씨 오일, 유채 새싹 추출물, 발효액, 복합제 등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진달래속 식물**(철쭉, 영산홍, 만병초 포함)에 대한 의약, 화장품 출원은 33건으로, ▲항산화, 항염, 항균 활성, 면역 증강 및 대사성 질환 치료 등의 의약품도가 19건 ▲항노화, 피부 진정 등의 화장품 조성물이 14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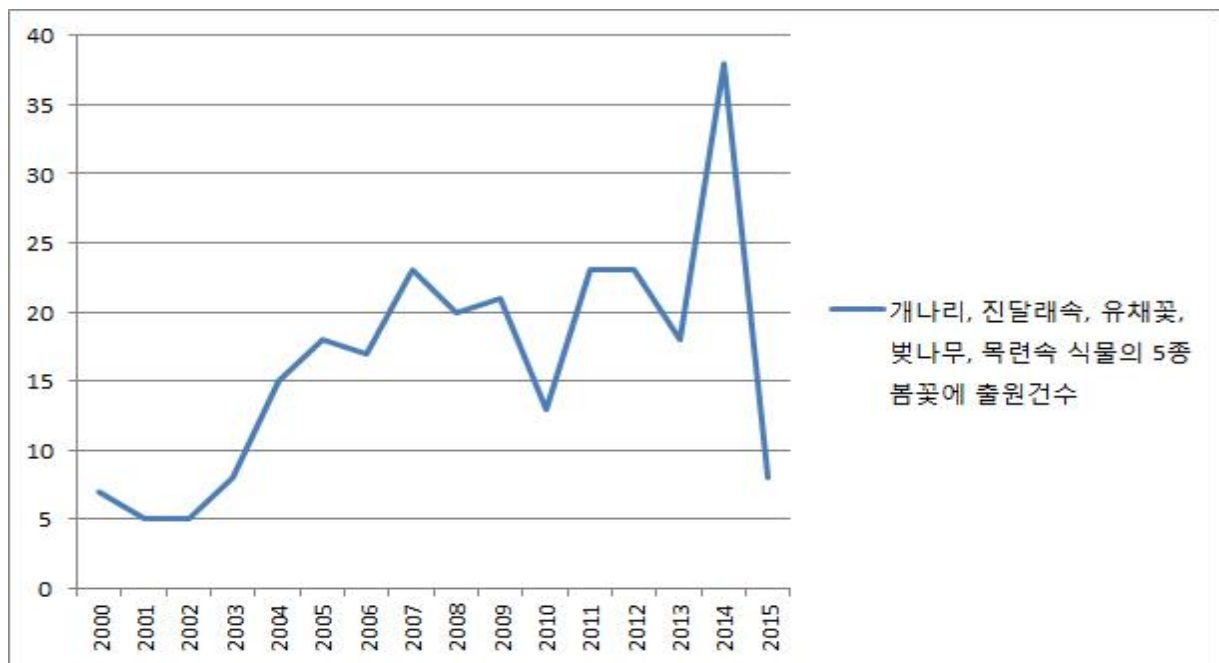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벚나무, 벚꽃** 관련 의약, 화장품 출원은 17건으로 ▲아토피, 골장애, 혈관 질환 치료 또는 항균 등의 의약품도 출원이 8건 ▲항산화, 미백 등을 위한 화장품 조성물 출원이 9건이었다.

특허청 이유형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등 우리들의 봄을 따스하고 아름답게 장식했던 봄꽃들이 화사한 색과 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 봄꽃들의 다양한 약리 활성 등 새롭고 유용한 용도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붙임1]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개나리, 진달래속 식물, 유채꽃, 벚꽃, 목련속 식물의 의약 또는 화장품 조성물 특허출원 현황³⁾



[붙임2] 개나리, 진달래속, 유채꽃, 벚꽃, 목련속 식물의 5종 봄꽃 식물에 대한 연도별 출원건수 동향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출원건수	7	5	5	8	15	18	17	23	20	21	13	23	23	19	39	8	264

3,4) 국제특허분류(IPC) 상의 분류가 A61K인 출원에 대하여 발명 내용을 검토하여 집계함